살아생전 외롭고도 힘들었던 삶 "마지막 길이라도 쓸쓸하지 않길"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 상주 맡은 광주 5개 구 담당자들에게 들어보니

"마지막 가는 길만이라도 쓸쓸하지 않길 바랍니다."

가족이 없거나 혹은 장례비 부담으로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일명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끝까지 지켜주는 이들이 있다.

광주시 5개 자치구의 복지담당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무연고 사망자의 상주를 맡아 이승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70대 여성 A씨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서부경찰은 피해자의 연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친척을 찾고 있다.

A씨와 같은 사망자가 발견되면 경찰은 신원조회를 하고 범죄 혐의점을 조사한다.

망자가 무연고로 확인되면 장례절차는 구청에서 담당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과 보건복지부 행정지침인 '2021년 장사업무 안내' 등에는 무연고자의 장례 절차, 책임 주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다.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지역 무연고 처리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0명이었던 무연고자 사망자가 올해에는 9월 까지만 30명까지 늘어 3년만에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무연고자 사망자 탓에 한달에 한번씩은 상주를 맡고 있다는 게 자치구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광주시 북구 복지정책과 이모 주무관도 매달 낯선 이의 상주를 맡고 있다.

이씨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매달 겪는 일이지만 참 어렵다"면서 "저 세상으로 떠나는 분에게 마지막이나마 예의를 갖춰 배웅해 드리려고 애쓰고 있다"고 어렵게 입을 뗐다.

광주 무연고 사망자 올해 30명
가족 해체·경제난에 매년 증가
유골함 5년 보관 후 산에 뿌려
팍팍한 삶에 유족들 인수 포기도
"쓸쓸함 속 예의 갖춰 배웅하죠"

그는 지난달에도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렀다. 광주 영락공원 화장장 대기실에서 소주와 과자 몇 봉지를 놓고 묵묵히 지켜봤다는 것이다.

이처럼 매달 상주를 하는 자치구 담당자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한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을 다녀오면 며칠동안 마음이 벌렁벌렁하며 우울감이 2~3주 정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젊은 직원들은 장례식장에 한번씩 다녀오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이 이들의 호소다. 한 담당자는 "몇 년 전 이 업무를 맡아 유골함을 처음 들었을 때의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유골함의 따뜻한 느낌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유행 탓에 최근 장례식은 거의 치르지 않고 있다. 광주 영락공원에서 화장한 뒤, 유골함은 무연고 안치실에 따로 보관된다. 구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무연고 사망자 1인당 장례비용은 80만원 선에서 진행된다.

이 비용 안에서 최대한 좋은 장례를 치러 주려 애쓴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자치구 담당자들은 최근에는 연고자가 없는 경우보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 안타깝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적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로 인정되는 가족은 부모, 자식, 형제·자매 뿐이다. 이들이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 관할 경찰 혹은 구청은 '시신처리위임서'를 받고 장례를 치른다.

남구의 김모 주무관도 최근 망자의 4남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고 한다.

김 주무관은 "망자의 화장을 하며 연고자들에게 한 번 더 연락해 '마지막 가는 길인데 오시는 것이 어떻냐'고 말했지만,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다"며 "오랫동안 떨어져 살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등 가족관계가 해체되면서 이런 일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난달 1일 무연고자 장례를 치른 서구의 성모 주무관도 "이번 무연고자의 경우 어머니와 4형제가 있었지만 각자 생계가 어렵거나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구청에서 무연고자로 장례를 치렀다"고 했다.

변사사건을 담당하는 광주북부경찰 관계자는 "살기가 팍팍하고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는 탓에 최근 형제자매 뿐 아니라 부모 장례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면서 "무연고 처리를 위한 서류작성을 위해 경찰서 방문을 요청해도 연고자들은 '내가 왜 가야 하느냐'고 말하기 일쑤지만, '망자의 집에 전세금이 남아있다' 등의 말을 하면 그제서야 경찰서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 씁쓸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광주시 영락공원 무연고자 유골함에는 약 1000기의 무연고자가 안치돼 있다. 5년이 지나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들은 영락공원의 산에 뿌려진다. /천홍희 기자 strong@

어르신 즐거운 한때

광주시 남구 대촌주민 자치회는 13일 오전 남구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에서 1000여 명의 어르신을 초청해 점심 등을 제공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나명주기자mjna@

해돋이 명소 '여수 향일암' 명승 된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거북이 등에 올라탄 형상·암석·동백숲 조화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뜻처럼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여수 향일암(向日庵) 일대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한다고 13일 예고했다.

여수시 돌산읍 금오산에 있는 향일암은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해 수행하다가 관세음보살을 직접 봤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으로 강원 양양 낙산사, 경남 남해 보리암, 강화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4대 관음 기도처로 꼽힌다.

향일암은 무엇보다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암자는 금오산 기암괴석 절벽에 세워졌는데, 마치 거북이가 경전을 등에 짊어지고 남해 용궁으로 들어가는 듯한 지형적 형상과 거북의 등껍질 무늬를 닮은 암석, 울창한 동백나무 숲 등이 조화를 이룬다. 특히 남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해돋이 경관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도 유명하다.

문화재청은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의 경관뿐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도 높다고 판단했다.

섬 지역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인데다 인근에는 돌산군청, 돌산향교, 은적암(隱寂庵), 방답진성(防踏鎭城·조선시대 수군기지 방답진의 성터) 등 문화 유적도 여럿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수 소미산 정상 대관람차 조성 반대"

시민단체 "특정업체 특혜"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여수 소미산 정상에 추진중인 대관람차 조성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에 대해 "소미산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즉각 취소하는 한편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 신청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돌산읍 소미산에 근린공원(10만여㎡)을 조성하고 소미산 정상(해발 205m)에 82m 높이의 대관람차와 곤돌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이 여수시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단체는 "사업계획을 낸 A 업체가 지난 2020년 소미산 정상에 동백숲 조성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산림을 훼손해 여수시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이번 사업계획을 낸 것은 대관람차 조성을 목적으로 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여수시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내주면 꼼수 계획임을 알면서도 허가해주는 꼴이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또한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라면서 "소미산의 자연환경과 경관이 특정업체의 돈벌이를 위해 사유화되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달 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광주 4년제 사립대 6곳 적립금 증가

호남대 1193억 늘어…시민단체 "교육의 질 향상에 쓰길"

광주지역의 4년제 대학들의 적립금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8개의 4년제 대학들 중 6개 대학의 적립금이 지난해에 비해 1200억여원이 증가해 약 26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호남대로 토지 매각 등의 이유로 1193억여원이 늘어 1570억여원의 적립금을 보유했다.

유일하게 적립금이 감소한 대학은 광주대로 2억2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적립금은 호남대가 1570억여원, 조선대가 634억여원, 광주여대가 136억여원, 광주대가 128억여원, 호남신학대가 15억여원, 광신대가 3200만원 순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송원대는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은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축적을 지양하고, 보유한 적립금을 활용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전남 임용고시 경쟁률 4.7대 1

2023학년도 전남교육청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7일 마감한 이번 원서 접수에서는 총 228명 선발에 1072명이 지원했다. 전년도에 비해 지원자 수 차이는 없으나 선발예정 인원이 40명 줄어 전년(4.46대 1)보다 평균 경쟁률은 소폭 상승했다.

유치원교사(일반)의 경우 54명 선발에 702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3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교사(일반)는 141명 선발에 267명이 지원해 1.8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